

출생아 44개월째 감소...7월 2만5263명 또 '역대 최저'

7월 인구동향...혼인건수 1만9180건 전년비 -4.5%



7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세는 2015년 12월 이후 44개월째 계속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5263명으로 2018년 7월 2만7033명보다 1770명(-6.5%) 감소했다. 7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의 출생아 규모다.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781명 감소를 시작으로 44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는 산아제한정책의 여파로 출생아 수가 줄었던 1982년 5월~1985년 7월 39개월 연속 감소를 뛰어 넘는 역대 최장 감소세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1년 내내 계속되면서 7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도 18만3787명으로 전년 19만8833명보다 1만5046명(-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2만6822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적은 20만명대가 예상된다.

시도별로는 강원과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도 계속됐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지난해 7월 2만911건보다 911건(-4.5%) 줄었다. 1~7월 총 혼인 건수는 13만9301건으로 전년 15만2458건보다 1만3157건(-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317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4명(-3.0%) 감소했으며, 이혼 건수는 9497건으로 같은 기간 170건(1.8%) 증가했다.

뉴스1

주택거래 '뚝' 이사도 끊겼다

8월 국내인구이동률 19년 만에 '최저'



신규 아파트 분양 감소와 주택 거래가 줄면서 인구이동률이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올해 8월 이동자 수는 56만6000명으로

지난해 8월 59만2000명보다 2만 6000명(-4.5%) 감소했다. 이는 8월 기준 2013년 55만8000명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3%로 전년동

월대비 0.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순이동률(전입-전출)은 경기 1만5703명, 세종 1568명, 강원 309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됐으며, 서울은 7410명 감소했다. 대구와 부산도 각각 1925명, 1897명 줄어드는 등 12개 시도도 순유출됐다.

8월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1.4%, 제주 0.4% 순을 보였다. 대전은 1.1% 감소했으며, 대구와 서울도 각각 0.9% 줄었다.

인구이동 감소는 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보다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고 주택거래도 감소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사 행렬이 줄면서 인구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서부도매시장, 주차장 38면 증설 등 환경 개선

유희부지 1804㎡ 활용...12월까지 마무리 예정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증설 등 환경 개선에 나섰다.

25일 광주 서부도매시장에 따르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동 앞쪽 유희부지 1804㎡를 활용해 주차장 약 38면을 증설한다. 주차장 증설공사는

지난 23일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공동체 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도매시장 내 종사자들이 환경정비활동을 벌였고 실내화장실 25곳은 고압세척기를 활용해 청소를 실시했다. 국화, 천일홍 등 1000여 주를

도매시장 입구 화단에 식재했다. 25일에는 유통종사자 200여 명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많은 유통종사자들이 일하는 만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제과의 만남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주크매장에서 모델들이 롯데백화점과 롯데제과가 함께 기획한 뉴트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트로 상품 3종(후드, 맨투맨/15만 9000원, 캔버스백/7만 9000원)은 오는 27일부터 소공동 본점, 잠실점 등 15개 점포에서 800장 한정판매 된다.

"소프트웨어야 놀자"...네이버, 광주 지역 초등학교 SW교육 진행

지역 행사 정보 데이터 이용해 광주 소개 로봇 코딩

네이버는 광주 파트너스퀘어에서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3년간 본사 그린팩토리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지난 7월에는 춘천 소재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광주 파트너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의 행사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 광주를 안내하는 로봇을 코딩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지현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자는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활용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 이번 프

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저사의 비영리 교육재단인 '커넥트재단'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야 놀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인 '엔트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엔트리는 지난해부터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로 채택되어 현재 1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서선욱 기자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컨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